



한·베트남 무역·투자 동향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14.12.10일 한·베트남 FTA가 타결되었다. 한·아세안 FTA('07.6월 발효) 활용을 통한 베트남 수출 확대 효과가 크지 않아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상품분야의 추가 자유화와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 개선 등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이 기대된다. 특히 9천만 인구의 30대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된 베트남 내수시장은 소비잠재력이 높아 한·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EU에 앞서 베트남 내수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다.

1 한·베트남 FTA 추진 현황

-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12.8월 협상을 시작하여 2년 4개월 만인 2014.12.10일에 타결됨
-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보다 포괄적인 FTA 추진을 목표로 협상 개시
 - 베트남의 WTO 가입(2007.1월) 이후 MFN 관세 인하와 한·아세안 FTA의 베트남 측의 낮은 개방수준으로 베트남 시장 개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 한·아세안 FTA : 상품 협정 2007.6.1 발효, 서비스 2009.5.1 발효, 투자 2009.9.1 발효
 -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중인 베트남은 한국과의 양자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우리의 현지 투자 기업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양자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상을 추진함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일자	추진경과
2008.12.9	양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2010.6-2011.11	한·베트남 FTA 민간공동연구회의 개최(총 6회) 및 공동연구보고서 채택('11.8)
2012.4.20	한·베트남 FTA 공청회
2012.8.6	한·베트남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하노이)
2012.9-2014.12	한·베트남 FTA 제1-9차 협상 개최
2014.12.10	한·베트남 FTA 타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ffa.go.kr)

2 한·베트남 교역 현황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국으로 2010-2013년간 연평균 31.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對세계(11.9%), 對아세안(15.9%) 교역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함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수출 제6위, 수입 제15위 대상국(2014.1-10월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對베트남과의 교역에서 1980년대 이래로 연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2014년 들어 對베트남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16.6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352.5억 달러)의 32.2%, 對아세안 무역수지 흑자(267.5억 달러)의 43.4%에 달하는 수준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1-10월	'10-'13년 연평균증가율		
									베트남	아세안	세계
수출	금액	16.9	34.3	96.5	134.6	159.5	210.9	183.1	31.1	18.9	11.4
	(증가율)	(16.7)	(5.4)	(35.0)	(39.5)	(18.4)	(32.2)	(4.4)			
	순위	21	18	9	8	6	6	6			
수입	금액	3.2	6.9	33.3	50.8	57.2	71.8	66.5	31.9	11.9	12.4
	(증가율)	(22.0)	(3.1)	(40.5)	(52.6)	(12.5)	(25.5)	(12.1)			
	순위	45	35	28	23	20	16	15			
교역	금액	20.1	41.3	129.8	185.5	216.7	282.6	249.6	31.3	15.9	11.9
	(증가율)	(17.5)	(5.0)	(36.4)	(42.9)	(16.8)	(30.5)	(6.3)			
	순위	27	27	15	15	14	9	8			
수지	금액	13.6	27.4	63.2	83.8	102.3	139.1	116.6	-	-	-
	<증감액>	<1.8>	<1.6>	<15.4>	<20.6>	<18.5>	<36.9>	<54.7>			
	순위	11	6	6	5	5	4	4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 베트남 현지 투자를 통해 제조·생산기지를 마련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베트남에 중간재를 수출하며 베트남으로부터 의류, 기타 섬유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가짐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합성수지 등의 중간재 비중이 크며, 특히 메모리반도체 등을 포함하는 집적회로반도체는 2010년 들어 현재까지 연평균 151.1% 증가를 기록하며 對베트남 수출을 주도

- 베트남에 우리 봉제·의류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신발 등 섬유제품으로 전체 수입의 37.4%를 차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명	2013	2014.1-10월		비중	품목명	2013	2014.1-9월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집적회로반도체	2,541	2,353	5.6	12.9	직물제의류	1,308	1,492	42.7	22.4
무선통신기기부품	1,526	1,621	23.7	8.9	편직제의류	371	410	28.4	6.2
합성수지	1,136	985	4.5	5.4	무선통신기기부품	175	224	66.9	3.4
편직물	942	803	4.6	4.4	기타섬유제품	217	209	16.6	3.1
인쇄회로	738	565	-13.4	3.1	스포츠화	180	195	28.4	2.9
열연강판	657	470	-14.4	2.6	기타목재류	150	195	58.8	2.9
기타플라스틱제품	348	347	15.6	1.9	기타신발	167	187	25.4	2.8
화물자동차	212	295	86.1	1.6	새우	124	168	82.2	2.5
평판디스플레이	743	293	-56.1	1.6	센서	184	151	-0.5	2.3
직물제의류	265	263	26.4	1.4	기타수산물가공품	112	113	28.1	1.7
소계	9,108	7,995	2.7	42.5	소계	2,988	3,344	37.3	50.3
합계	21,088	18,310	4.4	100.0	합계	7,175	6,647	12.1	100.0

주 : MTI 4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14.6%의 점유율을 기록, 중국에 이은 베트남의 제2위 수입대상국

[베트남의 수입시장 국별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국가	순위	'11년		'12년		'13년		'14.1-10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중국	1	246	23.0	288	25.3	369	28.0	355	29.3
한국	2	132	12.3	155	13.7	207	15.7	178	14.6
일본	3	104	9.7	116	10.2	116	8.8	104	8.5
대만	4	86	8.0	85	7.5	94	7.1	93	7.6
싱가포르	5	64	6.0	67	5.9	57	4.3	59	4.8
합계	-	1,067	100	1,138	100.0	1,320	100	1,215	100.0

자료 :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3 한·베트남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베트남 현지 투자는 182억 달러(누적기준)를 기록하며 금년 우리의 제4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반면,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1,465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

[한·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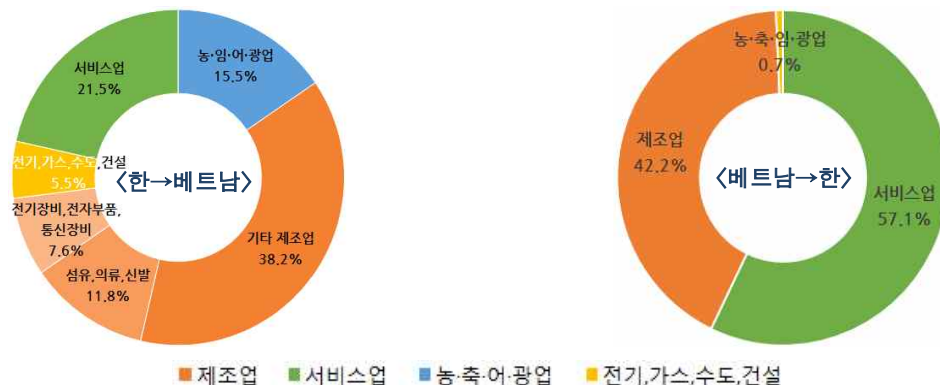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Q3	누적
한→베	금액	98,666	389,007	2,158,201	1,508,973	939,064	1,458,939	1,391,273	18,187,276
	순위	11	5	4	6	10	6	4	4
베→한	금액	0	1,065	792	4,986	1,745	2,072	849	14,652
	순위	-	57	60	41	47	52	51	72

주 : 한→베는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으로 누적투자는 '97-'14.Q3, 베→한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누적투자는 '80-'14.Q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o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및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정책으로 약 3,320개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였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對베트남 투자 확대

- 특히 섬유 및 전자 업체의 투자가 각각 전체 투자의 11.8%, 7.6% 차지

[한·베트남 업종별 투자 동향]



□ 베트남에게 우리나라는 제1위 투자국(2014.1-11월 누계)으로 금년 들어 58.1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기록하며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 증대에 기여함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억 달러)

국가	누계(~2014.11.20)			2014.1.1-11.20		
	건수	투자금액	순위	건수	투자금액	순위
합계	17,359	2475.3	-	1,427	134.1	-
일본	2,458	362.0	1	272	10.2	4
한국	4,066	354.6	2	455	58.1	1
싱가포르	1,340	322.4	3	97	23.0	2
대만	2,360	284.9	4	70	4.7	5
버진아일랜드(영국)	548	175.5	5	25	4.0	6
홍콩	862	140.2	6	90	15.0	3

자료 :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s of Vietnam)

- 우리기업은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생산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해 대세계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며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올해 삼성 및 LG전자 등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금년 들어 58.1억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제2위 투자국이며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¹⁾
-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이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1%(2014.1-10월 기준)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의 생산 활동이 베트남 수출 증대 및 국민소득 증가를 견인

[베트남의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

	2013년					2014.1-10월(추정치)				
	전체 수출			외투기업 수출		전체 수출			외투기업 수출	
	금액	증가율	순위(%)	금액	비중	금액	증가율	순위(%)	금액	비중
수출	1,321	15.4	-	809	61.2	1,238	14.1	-	769	62.1
- 각종전화기/부품	212	67.1	1위(16.1)	211	99.3	195	8.7	1위(15.7)	194	99.6
- 섬유/의류	179	18.9	2위(13.6)	107	59.5	174	18.0	2위(14.1)	104	59.4

자료 :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 1위 품목인 휴대전화/부품 수출액은 195억 달러로 이 중 외투기업이 99.6%를 수출
 - * 삼성전자는 베트남 휴대전화 수출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KOTRA)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의 對세계 수출액은 174억 달러로 그 중 외투기업이 수출의 59.4%를 담당
 -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수출 상위 10개사 중 한국기업이 4개사로 한세실업(베트남 제1, 2법인), 노브랜드, 세아상역 등(Vietnamtextile.org)
-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 관점에서 베트남 현지 생산 확대는 외투기업의 설비류/원부자재 수입 수요 증가와 연계되어 우리의 對베트남 중간재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TPP, EU와의 FTA 타결시 최종 완제품 수출에서 관세 인하 효과가 예상되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 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
 -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원부자재 수출 → 베트남에서 저임금으로 현지 가공·생산 → 미국, EU 등 거대 선진시장으로 수출시 관세인하 효과

1) 2014.8월 베트남은 산업화를 위한 4대 계획을 승인하며 2030년까지 전자제품의 주요 생산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제반 산업 육성, 인적 자원의 질 향상, 시장 확대, 신규 투자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제반 산업 육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약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법인세 면세(최대 4년) 및 감세(최대 9년)등의 인센티브 제공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2의 생산거점으로서 아세안, 미국, EU 등 우리의 세계 수출 시장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참조 : 베트남 FTA 추진현황]

- ① ASEAN 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협상) RCEP
- ② 베트남 단독
(발효) AFTA, 일본, 칠레, (타결) 한국, (협상) TPP, EU, E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4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및 내수시장 발판 마련

① 한·ASEAN FTA 현황과 한계점

-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현지 진출로 양국의 교역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對베트남 수출 확대 효과는 높지 않음
-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FTA를 발효했지만(2007.6월)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²⁾은 38.3%로 저조한 수준이며 이는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가운데 FTA 특혜 적용 비중이 낮다는 한계에서 기인
 - * FTA 수출활용률(2014.9월, 관세청) : 아세안(38.3%), EU(85.5%), 미국(76.3%)
-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의 실질적인 관세혜택은 2015년부터 발생해 관세인하는 2021년에 완료됨
 - 베트남은 WTO 가입('07.1월)을 계기로 MFN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일반품목군의 FTA 세율이 현재 베트남 MFN 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아 2015년부터 본격적인 관세 혜택이 발생함
 - 베트남은 아세안 6개국³⁾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일반품목군은 2018년, 민감품목군은 2021년까지 관세를 인하하기로 함
 - *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의 경우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품목에 대해 2012년, 민감품목군은 2018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2)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 / FTA 혜택품목의 수출

3) 아세안 6개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이룸

[한·아세안 FTA의 관세 인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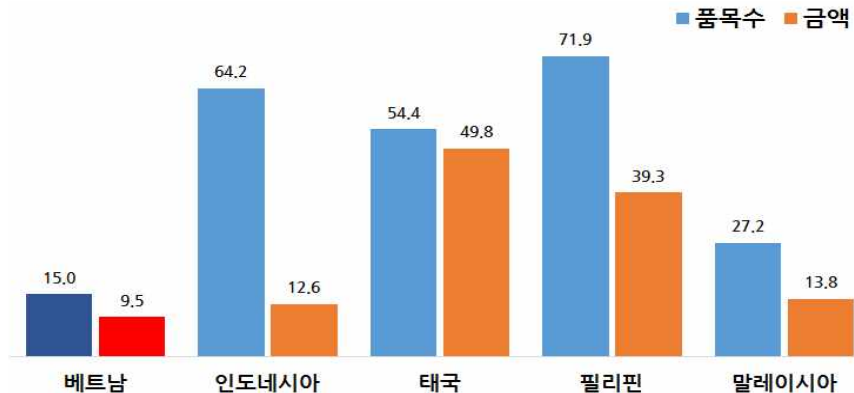
		베트남		한국, 아세안 6	
		비중(수입액)	철폐기간	비중(수입액)	철폐기간
일반품목군		76.9%	2018년까지 관세 철폐완료	90% 이상	2012년까지 관세철폐 완료
민감 품목군	일반 민감	23.1% (초민감 품목수 : 200개)	2021년까지 0-5%로 인하	10% (초민감 품목수 : 200개)	2016년까지 0-5%로 인하
	초민감		2021년까지		2016년까지

주 : 초민감품목(40개 품목)은 5개의 그룹이 있어, A그룹(관세율 50% 상한), B그룹(20% 인하), C그룹 (50% 인하), D그룹(최소수입물량 적용), E그룹(양허제외). A·B·C그룹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함
 자료 : 한·아세안 FTA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상위 500대 수출 품목⁴⁾ 중 품목수 기준으로 15.0%만이 한·아세안 FTA 특혜 대상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9.5%로 나타나 여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베트남의 시장개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됨⁵⁾

[주요 아세안 5개국의 개방도 : 품목수 및 금액기준]

(단위 : %)



주 : 해당국 상위 500대 수출품목(HS 10단위 기준) 중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수 및 금액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FTA무역리포트 2014.10월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② 한·베트남 FTA 타결 주요내용

- 한·베트남 양자 FTA를 통해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환경 개선 등 보다 개방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FTA 체결을 기대

4) 2012년 HSK 10단위 기준, 대베트남 상위 500대 품목은 전체 대베트남 수출액 가운데 90.6% 점유

5) 이뿐 아니라 對베트남 상위 수출품목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자전기제품이 정보기술협정(ITA) 적용으로 무세가 적용되어 FTA 활용이 사실상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무역리포트」, 2014.10월)

○ **(상품개방 확대)** 한·베트남 FTA 타결로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높은 품목과 민감 품목군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가 예상

* 현재 한·아세안 FTA에서는 민감품목(수입액 기준 23.1%)의 관세철폐·인하가 2021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200개의 양허제외 품목이 존재

- 합성수지, 섬유, 열연강판, 자동차 부품, 타이어, 원동기, 철도차량부품 등 주요 부품·소재 개방 확대

○ **(내수시장 진출 여건 개선)** 화장품, 생활 가전 시장의 개방을 통해 인구 9천만 규모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거대 소비시장으로의 진출 여건 마련

- 특히 구매력이 높은 30대 이하 젊은 층이 베트남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내수 소비시장의 잠재력 높으며, 베트남 경제 성장에 따라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할 전망

- 예를 들어 연평균 22%로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베트남 가전 시장에서 TV를 제외하고 유럽, 일본 브랜드 등에 열세인 상황으로 향후 관세 철폐 시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 TV 제외 베트남 가전시장 점유율('11년, KEA) : 필립스(22.6%), 샤프(17.3%), 마쯔시다(17.0%), 도시바(3.2%), LG(3.0%), 삼성(1.3%) (TV는 삼성, LG 등이 주도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우위('12년) : TV(42.8%, 1위), 냉장고(20.2%, 2위), 세탁기(23.3%, 1위)

○ **(건설 등 서비스 시장 개방)**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계·장비 임대 등 분야를 한·아세안 FTA 보다 추가적으로 개방

- 특히, 베트남은 동남아 최대 건설시장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및 도시 건설 산업이 활발하여 금번 FTA를 통해 진출 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 기대

* 하노이 2030 프로젝트 등 다양한 도시화 정책에 따른 건설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고속철 건설사업, 고속도로 및 교량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정되어 건설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대

- 베트남은 아직 구매력이 부족하여 중고 장비 및 기계 임대 수요가 큰 시장

○ **(현지 진출 기업 보호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3,320여개)의 투자 여건 개선

- 對베트남 투자가 급증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2대 투자국('14.11월 까지 누적, 354.6억 달러)

- (한류 콘텐츠 보호) 저작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5 결론 및 시사점

- 베트남은 우리의 제4대 투자 대상국으로 우리나라 베트남 현지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對베트남 설비류/원부자재 등 중간재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對베트남 수출 확대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아 한·베트남 양자 FTA를 통해 개방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
- 한·베트남 FTA 타결로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높은 품목과 민감품목군에 대한 추가 자유화가 기대되며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 베트남은 30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 9천만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으로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공략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최근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TPP 및 EU와의 FTA 타결이 예상됨에 따라 한·베트남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해 선점효과를 누릴 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박지은 연구원 (02-6000-5342, jieunpark@kita.net)
명진호 수석연구원 (02-6000-5263, thetotoro@kita.net)

[참고자료] 베트남 경제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 GDP(십억 달러)	170.6	187.8	204.5	219.4	238.8	259.0	281.4
1인당 GDP(PPP, 달러)	5,295.4	5,621.4	5,983.2	6,376.7	6,813.8	7,292.1	7,807.5
실질 GDP 성장률(%)	5.4	5.5	5.6	5.7	5.8	5.9	6.0
인구(백만 명)	89.7	90.6	91.6	92.5	93.5	94.5	95.5

자료 : IMF WEO(2014. 10월)